

최남선의 「不咸文化論」을 통해 본 고대사 만들기와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계*

金炳文**

- | | |
|---|------------------------------------|
| I. '조선학'이라는 문제 설정 | IV. 고대사 기술, 혹은 신화 만들기과 언어학의 역할 |
| II. 역사를 초월하는 '소리'와 동방 문화의 연원-「불함문화론」 분석 | V. 결론을 대신하여-고대사라는 '투쟁의 장'과 언어학의 자리 |
| III. 「불함문화론」의 안과 밖, 최남선이 상대해야 했던 것들 | |

• 국문초록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에서 ‘단군이 조선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또한 ‘극동 문화의 옛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동양학의 초석’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그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白=불’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비교 언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가까스로 거머쥔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고대사 기술의 관건은 바로 언어학적 방법론의 적실성 여부가 되고 만다. 언어에 남겨져 있는 고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일은 최남선뿐만 아니라 당시 민족의 기원을 천명하려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어학은 역사학의 그러한 시도를 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언제나 못마땅해 했다. 언어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 짓는 함량미달의 분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역사학이 발견한 고대사라는 ‘투쟁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의 장’에서 언어학은 과연 엄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떠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을 통해 당대의 고대사 서술이 어떠한 방법론적 기반 위에 서 있던 것인지를 특히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남선의 이러한 방법론이나 입장이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라 그가 대결하려고 했던 이들이나 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도 역시 공유했던 것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혹시 그러한 기획 자체에 어떤 난점이 내재해 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최남선, 불함문화론, 단군, 고대사, 불, 동양학, 역사비교 언어학

I. ‘조선학’이라는 문제 설정

1940년 8월 5일 홍기문은 조선일보 지면에 「조선학의 본질과 현상」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조선학의 과학적 정립이라는 과제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이 글에서 그는 조선학이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되는 세계사는 전 歐洲에 번지고 다시 다른 대륙에까지 미치어 …… 점차 세계사로의 전개를 보게되는 데서 그들은 동양을 발견하였으나 실상 그들에게 발견되기 이전에도 동양은 독자의 문명과 독자의 제도를 가추어 가지고 온 바 그 독자성이란 것도 결국 역사학의 일반적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既成한 세계사의 편협한 시각에서는 절대적 독자성을 표시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 세계사의 이즈러진 한 쪽을 김기 위하여 동양학이 생긴 것으로 지나학, 조선학도 오직 그러한 조건 아래 생성되는 것이라 … 따라 亭正한 세계사가 완성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러한 학문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진정한 세계사의 완성을 기다리어서 그러한 학문은 당연히 해소될 것이다.¹⁾

즉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는 서유럽 중심의 ‘이즈러진 세계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생긴 것이 바로 ‘동양학’이며, 그에 속하는 ‘지나학’이나 ‘조선학’이라 하는 학문 역시 제대로 된 세계사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존재 의의를 가질 뿐이어서 만일 온전한 세계사가 완성된다면 동양학이니 지나학이니 조선학이니 하는 것들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고는 이른바 실학 시대라 불리는 영정조 간의 여러 업적이나 外人들의 연구를 포함하여도 조선학이 아직 일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핵심이 될 역사학을 위시하여 그 보조의 언어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있다고 지적한다. 1930년대 자신이 기자로 근무하던 조선일보의 지면에 논문을 방불케 하는 분량과 수준의 조선어 관련 기사를 수십 편 연재한 바 있던 홍기문이 자신의 조선어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지

1) 홍기문, 「조선학의 본질과 현상」, 『조선일보』, 1940.8.5. 이하 인용문의 표기는 가급적 원문 그대로 옮기되, 띄어쓰기는 현행의 규범에 맞추었다. 단 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하였다.

명확히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다.²⁾ 그의 조선어 연구는 역사학을 보조하여 조선학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조선학은 서구 유럽 중심의 편중된 세계사를 교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동양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학’은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정인보와 안재홍이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펼친 ‘조선학 운동’을 통해 지식인 사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홍기문이 위의 글을 쓸 당시에는 이미 ‘조선학’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학이 서양 중심의 세계사를 교정하고자 하는 동양학의 하위 분야이며 그 핵심이 역사학이고 언어학이 그 보조의 학문이라는 홍기문의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의식하고 있었던 그렇지 못했던 ‘조선학’이 ‘동양학’을 배태했던 일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 그리고 그 담론적 학술적 場과 무관하게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또 동양학이든 조선학이든 시작부터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사 기술에 크게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남선의 「불함문화론」(1927)이다.³⁾ 이 글에서 최남선은 ‘단군이 조선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또한 ‘극동 문화의 옛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동양학의 초석’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白=불’ 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비교 언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가까스로 거머쥘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고대사 기술의 관건은 바로 언어학적 방법론의 적실성 여부가 되고 만다. 언어에 남겨져 있는 고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일은 최남선뿐만 아니라 당시 민족의 기원을 천명하려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어학은 역사학의 그러한 시도를 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2) 홍기문의 조선어 연구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병문,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난점-홍기문의 1930년대 언어 연구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참조.

3)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글은 조선사상통신사에서 1927년 8월에 발행한 『朝鮮及朝鮮民族』 제1집에 일본어로 발표한 것인데, 원고 말미에는 “1925.12.27稿 원래 신문 연재물로 起草하였기 때문에 통속적이고 간명함을 중심으로 하고 근거의 인용 등을 생략했다.”라는 내용이 달려 있다. 이 「불함문화론」의 번역본에는 현암사에서 출판된 『육당 최남선 전집』(1973)에 실린 것과 정재승·이주현 번역의 『불함문화론』(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전성곤 번역의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경인문화사, 2013) 등이 있는데 본문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가장 나중에 번역된 전성곤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언제나 못마땅해 했다. 언어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짓는 함량미달의 분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언어학적 방법론이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심해 보지 않는다. 근대 역사학이 발견한 고대사라는 ‘투쟁의 장’⁴⁾에서 언어학은 과연 엄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떠맡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을 통해 당대의 고대사 서술이 어떠한 방법론적 기반 위에 서 있던 것인지를 특히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남선의 이러한 방법론이나 입장이 결코 그만의 것이 아니라 그가 대결하려고 했던 이들이나 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도 역시 공유했던 것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혹시 그러한 기획 자체에 어떤 난점이 내재해 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역사를 초월하는 ‘소리’와 동방 문화의 연원-「불함문화론」 분석

‘조선을 통해 본 동방 문화의 연원과 단군을 계기로 하는 인류 문화의 一部面’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최남선의 「不咸文化論」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군이라는 열쇠를 통해 조선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더 나아가 극동 문화의 옛 모습을 복원해 보고자 하는 야심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의 서두를 그는 ‘단군의 민속학적 연구 결과는 구태여 태백산에 그 객관적 대비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태백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고조선의 중심 지역이 어느 곳이었는가를 고증하려는 자못 오래된 역사적 논쟁에는 이 글이 처음부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⁵⁾ 이는 물론 이 글이 단군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결과’이었기 때문이다. 즉, 역사 시대에서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한 史實만을 위주로 하여 고대사를 구성하려는 일본인들의 이른바 실증 사학이 아니라, 민속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역사 시대

4) 이성시 저, 박경희 역,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2019 참조.

5) 고조선의 중심 지역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 대해서는 송호정,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 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대사논총』 10,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2000 참조.

를 훌쩍 뛰어넘는 시기부터 형성되어 면면히 전해져 온 문화적 원형, 즉 “人文의 濫觴”을 밝혀내겠다는 것이 최남선의 의도였던 것이다.

실제로 최남선은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보는 일본인들의 단군론을 ‘매우 극심한 횡포’라고 규정하며 “원시 문화의 산물을 고찰함에 있어서 인문과학적 방법이 전연 도외시되고 있음은 기괴한 일”⁶⁾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인문과학적 방법’이라 함은 민속학, 인류학, 언어학과 같은 근대적인 학문 분야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⁷⁾ 그러나 정작 이 「불함문화론」에서 민속학이나 인류학적 방법론이 활용된 부분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예컨대 이 글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薩滿教節記」(『계명』 19호, 1927)의 경우에는 그가 ‘고아시아족’ 혹은 ‘우랄 알타이족’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샤머니즘의 구체적 양상과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여러 인류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각종의 현지 조사가 구구히 인용되어 있지만, 이 「불함문화론」에는 그와 같은 인류학이나 민속학적 자료들이 제일 뒷부분에서(16, 17장) 소략하게 나타날 뿐 이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에 비해 이 글을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은 고유명사, 그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巨山들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유사성을 찾아내어 이를 비교하고 그러한 어휘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어원을 밝혀내는 작업이다.⁸⁾ 물론 그러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일대에 神山 사상, 즉 하늘이나 태양을

6) 최남선 저, 전성곤 역,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4면.

7)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을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실증 사학에 기반한 단군 연구에 맞서 최남선 역시 민속학, 신화학, 인류학, 언어학 등과 같은 근대적 방법론을 활용해 단군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현주, 「문화, 문화과학,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최남선의 ‘檀君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참조.

8) 地名을 통해 고대의 언어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사실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반 어휘와 달리 지명에는 옛 명칭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국사기』 권 34-37의 「지리지」에는 신라의 경덕왕 16년(757) 시절의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삼국의 언어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곤 한다. 그러나 물론 같은 자료를 사용해도 그 결론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이기문, 「언어 자료로 본 삼국사기」,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974, 215면에서는 “중래의 고대어 연구의 가장 큰 결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단일언어가 말해지고 있으므로 옛날에도 그랬으리라는 선입견에 지배되어 삼국의 자료를 뒤섞어 버린 데 있다.”고 하였으나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3, 117면에서는 역시 같은 『삼국사기』의 「지리지」를 활용하였으나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고구려 지명이 보여주는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는

섬기듯 신령스러운 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원초적 종교가 있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을 공유하는 거대한 문명권, 즉 ‘불함문화권’이 역사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은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명사들에서 보이는 음성상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그 어원을 재구하는 것이었다. 그가 ‘조선에는 백(白, Paik) 또는 그와 유사한 음을 명칭으로 가지는 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이 글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최남선이 지적인 대로 우리의 산 이름에는 ‘白頭, 長白, 太白, 小白, 白雲, 白巖’ 등과 같이 ‘白’이라는 음절을 포함한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白’의 명칭을 가진 산이 많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민족적 연유가 있는 것”이라며 과거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다른 모든 자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의 명칭이 남아 있어 古文化의 중요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음은 실로 의외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의 산 이름에서 ‘白’자의 어형은 실로 그 시대 문화의 중심 사실을 示現하는 귀중한 증빙”이라는 것인데, 그 ‘고문화’의 내용이란 역사 시대 이전부터 성행해 온 “태양을 大神으로 하는 일종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며, ‘白’이라는 산의 명칭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종교 事象 또는 全 문화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⁹⁾ 따라서 단군을 포함한 조선의 고대 문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방 문화의 연원을 해명하는 관건은 바로 ‘장대한 산들의 무리나 준엄하고 높은 산봉우리’의 명칭에 붙어 있는 이 ‘白’의 의미를 밝혀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白’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서 최남선은 해당 한자의 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산 이름을 표기한 이 字가 사실은 조선의 고유어를 “만엽류, 즉 이두식으로 寫音”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자를 빌려 고유어의 음을 적은 것이므로 한자의 본의는 그리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거산의 명칭에 대부분 ‘白’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굳이 그 음을 알파벳으로 ‘Paik’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도 그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남선이 보았을 때 이 ‘白’자가

계통을 달리하는 근본적인 언어차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 그러한 차이는 특수한 방언적 차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9) 최남선 저, 전성곤 역,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6~7면.

표기한 조선의 고유어는 ‘pärk’이고 이를 한글로 적으면 ‘븍’이 된다. 그리고 이 고대의 조선어 ‘Pärk=븍’에는 ‘신’과 ‘하늘’이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신과 하늘은 그대로 ‘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고대에는 종교적으로는 ‘Hanär(하늘)’, 혹은 ‘Hanär-nim(하늘님)’보다도 특히 ‘Pärk(븍)’이나 그 활용형인 ‘Pärkän(븍은)’이나 ‘Pärkän-ai(븍은애)’가 태양을 뜻하는 성스러운 어휘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된 듯하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그가 굳이 ‘하늘’을 언급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 어휘는 「불함문화론」에서 조선의 고대 문화와 동방 문화의 연원을 찾아나가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단 한 번 언급될 뿐 이 뒤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환인, 환웅’의 ‘桓’이 ‘한울, 한얼’ 등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한자로 적은 것이라는 대종교에서의 설명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⁰⁾ 조선광문회 운영 당시 최남선이 김교헌 등과의 교류를 통해 대종교의 교리를 접했을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¹¹⁾ 그렇다면 그는 ‘桓’(혹은 ‘韓’)으로 표기되었다는 ‘하늘=神’ 대신 ‘白’으로 표기되어 온 ‘븍=神’을 새로이 발견해 내고 이에 근거하여 동방 문화의 연원을 밝히고자 한 것이 된다. 이는 아마도 전자가 민족(nation)의 외부와는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내부적 울림에만 만족해야 하는 소리였던 데 비해 후자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네이션의 소리와 교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른바 동양 문화의 비밀을 풀어 줄 수 있는 음성 형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최남선에게 ‘pärk=븍’은 일종의 역사비교 언어학의 방법론이 활용 가능한 고대의 소리였던 것이다.

‘神山=븍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적 사적 생활이 조직되어 그것의 존재가 고대의 부족 내지 국가 성립에 필수적이었다는 ‘불함문화’는 조선을 중심으로 상당히

10) 대종교의 주요 경전 중의 하나인 『神理大全』을 윤세복이 한글로 풀이한 『譯解神理大全』에는 “桓의 음은 「한」이요 因의 음은 「임」이라 古語에 天曰桓이니 卽大一之義라 合言則桓因은 天父也오 桓雄은 天師也오 桓儉은 天君야니라.”라고 하여 ‘桓=한’을 ‘크다, 하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譯解經四部合編全』, 대종교총본사, 1968, 54면). 이밖에도 1929년 집지 『조선』에 연재한 「조선신사지」라는 글에서 이능화는 ‘桓, 韓’ 등이 모두 ‘크다’라는 의미의 고유어를 한자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조선광문회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김교헌은 대종교의 제2대 교주가 되는 인물이다. 또 조선광문회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사전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역시 그 즈음 대종교로 개종하였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선광문회의 참여 인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참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최남선의 판단인데, 그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증거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일본에서 천손 강림의 장소라고 불리는 다카치호(高千穂)의 여러 산봉우리 이름에서 보이는 ‘후루(フル)’나 ‘호코(ホコ)’라는 음성 형식이다.(‘구시후루, 호코노미네’) 이 ‘후루’나 ‘호코’가 ‘불’의 일본어 어형이고, 따라서 천손강림의 신화뿐만 아니라 ‘pärk’이라는 명칭상의 일치까지 발견되는 만큼 다카치호의 일본사적 지위는 조선사의 태백산과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불’과 ‘후루, 호코’가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남선은 친절히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1) ‘후루’는 ‘불’에서 ‘r’음이, ‘호코’는 ‘k’음이 생략된 것이라는 설명과 2) 2장의 말미에 “(조선어의 ‘p’음이 일본어로 轉音할 경우, ㅏ행음을 취함은 이미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追記한 듯이 보이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우선 첫 번째 설명은 ‘불’의 받침 ‘ㄹ’에 대한 것으로서 일본어에서는 이 겹받침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생략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후루’는 ‘k’가, ‘호코’는 ‘r’이 생략된 것으로 기술되었어야 할 것이다.¹²⁾ 문제는 조선어의 ‘p’음이 일본어에서는 ㅏ행, 즉 ‘h’로 轉音한다는 두 번째 설명인데,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이미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언급이 눈길을 끈다. 최남선이 여기서 언급한 ‘법칙’이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두 언어에 속한 어휘들이 음성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비교 언어학에서 중요시 하는 ‘규칙적인 음운 대응’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닐까 한다. 역사비교 언어학에서 이 규칙적인 음운 대응은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음운 대응이 있어야 같은 계통의 언어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계통의 언어라면 반드시 일정한 음운 대응이 규칙적으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9세기 초 야콥 그림은 그리스어, 고트어, 고지 독일어 사이에서 발견되는 ‘p-f-b(v), t-th-d, k-h-g’와 같은 규칙적인 음운 대응의 양상을 규칙화하였고 이는 이후 ‘그림의 법칙’으로 불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언어의 계통을 구명하려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¹³⁾

12) 최남선의 단순한 誤記로 보이는데 한국어 번역본들에서는 이에 대한 별반 언급이 없다.

13) ‘그림의 법칙’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風間喜代三 저, 김지환 역, 『19세기 언어학사』, 박이정,

19세기 후반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어의 계통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들이 바로 이 음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한 언어의 계통을 규명하는 데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한국어 계통 연구에 의하면 알타이어의 여러 언어와는 물론이고 일본어와의 규칙적인 음 대응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언어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¹⁴⁾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남선은 ‘조선어 p음의 일본어 h로의 轉音’이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단언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단정은 필시 한자어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자어의 경우 바로 그러한 규칙이 쉽게 관찰되기 때문이다.¹⁵⁾ 그러나 역사 시대 이전에 있었던 고문화의 연원을 밝혀내고자 하면서 외래 요소라 할 수 있는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음 대응을 근거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역사비교 언어학에서도 다른 계통의 언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를 비교의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주로 숫자나 친족명, 신체 부위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이런 어휘들이 차용의 영향을 가장 덜 받기 때문이다. 물론 최남선은 이 「불함문화론」에서 한자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고유어 어휘들이 사실은 계통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휘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동일한 어원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작 한자어에서의 음 대응 현상이라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은 ‘조선어 p음의 일본어 h로의 전음’라는 이 ‘법칙’을 근거로 해서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神山 사상의 흔적을 지칠 줄 모르고 속속 발견해 나간다. 즉 앞서 언급한 다카치호의 예 외에도 민속학상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부젠(豊前)의 ‘히코야마(彦山)’는 물론이고 규슈 지역도 ‘명산, 명악’이라고 하는 산

2000, 94~105면 참조.

14) 이에 대해서는 송기중,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2004, 20~22면 참조.

15) 일본의 한자음은 대체로 남북조 시대의 남방계음인 吳音과 唐代의 장안음인 漢音으로 나뉘고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한국 한자음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가 『朝鮮漢字音の研究』(1968)에서 제시한 당대 장안음설에 대해 ‘절음운’이 기본이 되었다는 설, 남북조음이 모태가 되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 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한자음의 기원을 규명하려는 이경철의 연구에 의하면 ‘ㄹ’모에 해당하는 ‘ㄱ’의 성모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p, ph’로, 일본어의 한음에서는 ‘p’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경철,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 연구』, 보고서, 2003, 103면).

은 어떤 식으로든 ‘Pärk’과 관련을 맺고 있고 또 그런 산들은 예로부터 예외 없이 민중의 신앙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 역시 ‘조선어 p음 > 일본어 h음’이라는 ‘법칙’을 근거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¹⁶⁾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일본 神代史의 요람이며 조선과 인연이 깊다고 하는 산인(山陰) 지방, 그리고 아마토 및 오미(近江) 지방의 산 이름에까지 두루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어의 ‘p’가 일본어의 ‘h’로 轉音했다는 법칙에 의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남선이 제시하는 다양한 명칭들을 하나같이 ‘불’으로 소급하기에는 그 변화의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 역시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4장 ‘白山의 음운적 變轉’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 핵심은 조선어의 ‘·’, 즉 ‘ä’는 ‘분화 정도가 얇은, 극히 선명치 못한 모음의 모음’이라서 “발음 기관의 사소한 移變에 따라 ‘a, ö, u, eu’ 중 어느 것으로도 자유로이 전환’된다는 것, 그리고 종성이 ‘rp, rm, rk(ㄹㅍ, ㄹㅁ, ㄹㅇ)’와 같이 둘일 때 ‘音便上’, 즉 발음의 편의를 위하여 그 중의 한 음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을 이 법칙에 따라 설명하면 ‘ä’란 모음은 ‘a, u, e, o’¹⁷⁾ 가운데 어느 하나로, 종성 ‘rk’는 분리되어 ‘r’ 혹은 ‘k’ 어느 것으로도 전변할 소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대의 어형이 ‘히코(ヒコ)’나 ‘후쿠(フク)’이든, 또는 ‘하라(ハラ)’나 ‘후루(フル)’이든 어느 것이나 “그 근원을 ‘Pärk’에 귀착시킴에 조금의 어긋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

근대 계몽기 이래 전개된 ‘국문론’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민간에서 통용되던 반절표에서 제일 위에 있던 ‘卜’과 대비하여 제일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이래아’라고 불렀던 이 글자의 音價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주장이 있었고 그 실체가 규명된 것은 한참이나 뒤였다.¹⁹⁾ 非語頭 음절에서 먼저 ‘· > ㅡ’로의 변화를 거친 뒤(16세기), 다시 어두 음절에서 ‘· > 卜’의 과정을 거쳐 그 음가가 ‘소실’되었다는 이 ‘·’에 대해²⁰⁾ 최남선은 ‘분화 정도가 낮은, 지극히

16) 최남선이 예로 제시한 명칭은 ‘하쿠잔다케, 호라가다케, 호케다케, 호코노모토미네’ 등이다.

17) 앞에서 ‘a, ö, u, eu’라고 한 것과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18) 최남선 저, 전성곤 역, 앞의 2013 책, 21면.

19) ‘·’의 음가에 대한 해석은 음라우트나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 현상은 물론이고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 전체 모음 체계와의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5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야 학계의 정설이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수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평가된다.

선명하지 못한’ 소리어서 어떤 모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오히려 동방 문화의 시원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음운 법칙에 의해 그 실체를 드러낸 ‘불함문화권’은 조선과 일본, 동부지나는 물론이고 류큐와 만주, 몽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이었다. 심지어 ‘불’의 ‘轉音’을 설명하는 이 음운 법칙은 뜻밖에도 ‘불가 강, 바그다드, 발틱, 발칸, 불가리아, 부카레스트, 베오그라드’ 등에까지 적용되어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못했던 ‘천고의 신비’를 드러내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Ⅲ. 「불함문화론」의 안과 밖, 최남선이 상대해야 했던 것들

1786년 벵골 대법원의 판사로 근무하던 영국인 윌리엄 존스가 그리스어와 라틴어, 산스크리트어가 그 어떤 미지의 공통 祖語로부터 분화한 자매어임이 분명하다는 발표가 역사비교 언어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국적 표상의 전형으로 사용되던 인도가 알고 보니 그동안 잊고 지내던 먼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유일한 근거는 언어학적 유사성뿐이었다. 언어학적 방법론이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전통이나 담론들을 일거에 뒤엎을 만한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이보다 여실히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최남선이 ‘불’의 소리에 주목하고 이의 ‘전음’ 과정을 법칙화한 것은 역사비교 언어학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군이라는 열쇠를 통해 조선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냄과 동시에 극동 문화의 옛 모습을 복원해 내고자 그러한 ‘음운 법칙’을 발견해 냈던 것인데, 그러나 ‘불’이라는 소리만으로는 아직 단군의 실체를 규명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등장한 또 다른 고대의 소리가 바로 ‘대궤리’이다.

최남선에 따르면 금강산의 ‘금강’이 유도된 원래 이름이 바로 ‘대궤리’ 또는 ‘대궤’²⁰, 즉 ‘Taigāri(i)’이고, 이 말이 현재 조선어에서는 ‘머리’의 의미로 쓰이지만 ‘Tangri, Tengri’와 같은 터키어, 몽골어 단어를 통해 볼 때 원래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Taigāri’라는 고대의 소리는 중국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20)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130면, 200면.

‘泰山’의 ‘태, Tai’가 어디에서 왔는지(‘泰山府君’의 ‘부군’은 ‘불’의 활용형인 ‘붉은’에서 온 것으로 풀이한다), 그리고 일본의 산 이름에서 허다하게 발견되는 ‘다카, 다케’ 등의 연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단군’ 역시 이 ‘대그리’와 연결시켜 “단군이란 텡그리 또는 그 類語의 寫音으로서 원래 하늘을 의미하는 말에서 변전하여 하늘을 대표한다는 君師의 호칭이 된 말”이며 “君長의 호칭에 하늘을 씌워 부른 것은 이 문화권 내 특색”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때 “언어학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몽고어의 텡그리(Tengri)가 하늘과 한 가지로 巫(拜天者)를 의미”한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단군을 후세의 날조에 돌리는 것은 “실로 학문적 불성실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남선은 일본인들의 이른바 단군 말살론을 재차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²¹⁾

최남선의 단군 관련 논의가 일본 학자들의 이른바 단군 말살론에 대한 대응이며, 특히 동양학을 개척했다고 하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 논의를 의식했다는 점은 그간의 여러 논의들이 지적해 왔던 바이다. 시라토리는 1894년에 발표한 『檀君考』에서 불교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²²⁾을 들어 단군 신화가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 시기의 하한선은 단군이 기록된 중국의 유일한 사서인 『魏書』가 편찬되기 시작한 6세기 중엽으로 추정하는 바 있다.²³⁾ 시라토리의 주장 자체는 “단군을 고려 중엽의 일개 승려의 날조”로 돌렸다는 최남선의 비난과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역사 시대를 초월하는 동방 문화의 연원을 단군으로부

21) 최남선, 전성곤 역, 앞의 2013 책, 55~56면.

22) 시라토리는 『화엄경』이나 『아함경』 등을 근거로 ‘神檀樹’의 ‘檀’이 부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牛頭栴檀에서 온 것이고, 일연이 ‘桓因’을 ‘帝釋’이라 풀이한 것도 불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저, 조경철 역, 「단군고」, 신종원 엮음,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2009, 민속원. 그러나 기존에 전승되던 신화가 몽고 침입기를 맞아 불교적 색채로 재조명되었다는 해석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헌,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고려시대 단군 신화 전승 문헌의 검토」, 윤이훈 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증보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45~147면 참조.

23) 시라토리는 단군의 활동 시대를 요순과 같은 시기로 설정한 대담함을 들어 이 신화의 형성 시기를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장수왕 때로 추정한다. “장수왕은 永明 9년(491)에 죽었다. 위수가 『위서』를 편찬에 착수한 것은 이보다 60년 뒤의 일이다.”라는 「단군고」의 마지막 문장은 시라토리가 단군 신화의 형성 시기를 ‘실증적’으로 고구한 최대치가 바로 여기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터 찾으려는 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라토리의 위의 논리 역시 극복의 대상이었음은 물론일 것이다. 그런데 최남선의 이 「불합문화론」이 당시에 시도되던 사회주의적 집단의 창출, 즉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내세운 ‘혁명 신화’에 맞서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견해 역시 음미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²⁴⁾

실제로 최남선은 “설사 무산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함을 글짜 그대로 단순히 용인할 것이라 할지라도 … 조선인이 조선을 알아 무엇하랴 하는 기괴한 견해는 대체 엇더케 나온 사상이며 무엇이든지 조선에 관한 것은 다 헛것 공연한 것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함은 대체 엇더케 하는 料量인지” 알 수 없다며 당시의 풍조를 한탄하기도 했다.²⁵⁾ 신화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시공간에 갇힌 서사가 아니라 과거에 기초하여 현재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성격이 있다면 최남선의 단군론이 옹전해야 했던 것은 단지 일본 학자들의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당시에 급속히 퍼져가던 사회주의 이론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백남운이 ‘원시 씨족 공산제 및 노예경제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그의 저서 『조선사회경제사』 서론에 기술한 ‘제2장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어쩌면 최남선의 그러한 시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 우리 선배 諸公은 단군 신화를 조선문화의 酵母, 아니 동방문화의 연원으로까지 믿고 있지만” 단군이란 것이 “농업 공산사회의 붕괴기에 원시귀족인 남계 추장의 칭호에 불과”²⁶⁾하다는 백남운의 결론은 애초부터 최남선의 단군론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두 논리가 모두 (인간의 의식이나 주관적 행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법칙’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조선어에서의 p음이 일본어에서는 h음으로 轉音한다는 ‘법칙’과 ‘원시공산제 - 고대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라는 역사 유물론의 ‘법칙’ 사이에서 아무런 소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과도 분명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그에 비해서 시라토리의 동양학과 최남선

24) “최남선은 사회주의적 집단의 창출-노동자 농민에 의한 혁명의 신화에 맞서는 동시에 일본이라는 집단의 신화에 맞서는 방법으로 단군이라는 구원상을 잡아챈다. 실제로 최남선의 신화론은 3·1 운동이 보여준 집단의 경험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일본의 역사실증주의에 의한 단군 부정에 의해 그 술어를 얻었고, 또한 사회주의에 의한 조선 내의 분할에 맞서 생겨났다.” 황호덕, 「북계의 신화, 구원과 협력의 장소: 육당의 존재-신화론」, 『별레와 제국』, 새물결, 2011, 153면.

25) 최남선, 「자기망각증」, 『동아일보』, 1925년 9월 8일.

26) 백남운 저, 하일식 역, 『조선사회경제사』(백남운 전집1), 이론과 실천, 1994, 33면.

의 불함문화론은 분명 공유하는 지점이 훨씬 많았다. 앞선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최남선의 단군론은 일본 학자들의 ‘단군 말살론’에 맞서는 과정에서 그들의 방법론과 술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신화학, 민속학, 인류학, 언어학 등과 같은 이른바 근대적 과학을 최남선 역시 주요한 무기로 삼았다는 것인데,²⁷⁾ 그 가운데에서도 이 「불함문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학적 방법론이었다.

물론 시라토리의 ‘남북이원론’ 같은 것은 세계사를 서양과 동양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북방과 남방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군을 통해 동방 문화의 연원을 찾으려고 하는 최남선에게 근본적인 시사점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바로 그 북방 계통의 문화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시라토리에게나 최남선에게나 다름 아닌 ‘언어’였다. 불함문화권을 재구해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광범한 지역의 고유명사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유사성이었음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거니와, 시라토리 역시 그의 초기 동양사 연구에서 ‘우랄 알타이어’ 분석을 매우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⁸⁾ 예컨대 그는 「朝鮮語とUral-Altai語の比較研究」(1914~1916)라는 논문에서 595개의 조선어를 표제항으로 삼고 이를 각각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과 비교하여 유사한 어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어가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함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 논문은 그 이전에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몇몇 어휘의 단편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제기하던 한국어 관련 어족설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데, 현재까지도 한국어 계통 연구사에서는 반드시 언급되는 연구이기도 한다.²⁹⁾

27) 김현주는 최남선이 다양한 근대 문화과학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를 수용·응용했으며 특히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비교 민속학의 관점을 채택하였다고 보았다(김현주, 앞의 2004 논문). 오문석은 「불함문화론」을 계기로 역사 실증주의라는 시라토리의 한계를 넘어선 최남선의 학문 영역이 민속학,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신화학 등으로 확장해 갈 수 있었다고 보았다(오문석, 「민족문화와 친일문학 사이의 내재적 연속성 문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류시현은 최남선이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을 통해 수용한 근대적 학문 방법론을 바탕으로 ‘식민사관’ 내지 ‘식민학’에 대항하여 조선의 전통을 주제로 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고 보았다(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152면).

28) 시라토리의 동양학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이 차지하는 위치, 단군 연구 및 남북 이원론이 의미하는 바 등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가 저, 박영재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23~159면 참조.

물론 현재는 ‘우랄 알타이어’라는 용어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결정적으로는 그가 어족 형성의 요인을 규칙적인 음 대응이 아니라 어근이나 문법상의 유사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비교 언어학이 지금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³⁰⁾ 그러나 여기서 관심을 갖는 사항은 그러한 점보다는 그가 언어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기원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고 또 이것이 당대의 고대사 연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이다.³¹⁾ 그런 점에서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은 백남운의 사회경제사적인 논의와는 달리 시라토리의 동양학과는 소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 글을 일본어로 집필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당시 제국대학의 학생이었던 이승녕의 다음과 같은 회고담을 보면 그러한 소통의 시도가 그리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³²⁾

그 중에서 육당 최남선씨가 가장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일본어로 쓴 「불함문화론」이란 논문으로 우리는 아주 실망했다. …… 그 비교언어학의 태도는 완전히 낙제이어서 우리들을 실망시켰다. 예를 든다면 몽고어의 *tenger*(天)이 국어의 「티골」에 맞고, 그것을 일본어의 「高彦山(Takahikoyama)」에 비교하다니 한창 날카로운 수련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실망을 준 것이다. 今西龍교수(韓國史)가 강의하다가 질문이 있고 할 때에 가끔 「그 것 崔씨의 사고법이라면 몰라도」라고 나올 때 우리는 등에서 땀이 오싹 날 지경이었다. 오죽이나 일본

29) 시라토리의 이 논문에 대한 언어학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3, 36~37면; 송기중,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2004, 80~81면; 송기중, 「알타이어족의 비교언어학」, 임용기·홍윤표 엮음,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700~701면.

30) “음운대응의 규칙성은 어휘대응의 뒷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어원을 탐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음운대응의 뒷받침이 없는 어휘의 비교는 아무리 외면상의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 어원임을 증명하는 것이 못되는 것이다.” 김방한, 앞의 1993 책, 25면.

31) 스테판 다나카는 시라토리의 이러한 방법론은 서양의 동양학자들이 행한 연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 역, 앞의 2004 책, 124~126면 참조.

32) 1926년 경성제2고보를 졸업한 이승녕은 28년 3수 끝에 경성제대 예과를 입학했고, 30년 4월에 법문학부 조선어급조선문학과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2008, 70~71면, 「연보」 참조. 이에 따르면 그는 “4월 10일 사학과로 진학했다가 5월 22일부로 문학과 조선어학·조선문학전공으로 전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 교수들이 모여서 홍보고 낮추어 평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창피했다.
그런 논문을 왜 일본어로 썼느냐 말이다. 그것이 더 창피했다.³³⁾

조선사 전공의 이마니시 류의 비아냥에 ‘땀이 오싹 날 지경’이었다는 이승녕의 이 회고는 그러나 최남선만이 아니라 그를 비롯한 선배 세대 전체에 대한 평가였다. “「우리 선배님들 도대체 무엇하고 있지.」 「안모씨의 논문이 내용에서 보아 돼먹지 않았어. 그것도 논문이라 ……」 「P씨는 캐달로구 박사야. 불면 꺼질 내용을 가지고? ……」 우리 학계의 수준은 말이 아니야 ……」”라는 불평, 그리고 “우리가 뒷날 밀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다짐에 이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제시한 것이 바로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관한 위의 언급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교수들이 읽을 수 있게 ‘그런 논문’을 일본어로 썼다는 사실이 더 창피했다는 이승녕의 회고는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당시 제국대학에서 어떻게 읽혀졌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역사 시대 이전의 고문화를 밝히기 위해 언어에 주목한다는 학문적 방법론을 공유했던 제국의 ‘동양학’과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끝내 소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인 교수들에게 ‘한창 날카로운 수련을 받고 있던’ 당시의 이승녕이 「불함문화론」을 평가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교언어학이었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비교언어학적 기준을 시라토리의 ‘우랄 알타이어’ 연구는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제국의 학술장에서 어쩌면 그 기준은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제국은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은 신앙이나 신념의 차원에서 구성하면서도 식민지의 기원 신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학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은 불함문화론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³⁴⁾ ‘민족’이 중세의 보편종교를 대체한 근대의 ‘새로운 종교’라고 이해한다면 그 민족의 정체성은

33) 이승녕, 「나의 연구 생활」, 대한민국 학술원 편, 『나의 걸어온 길』, 1983, 448~449면.

34) 윤영실,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부, 2018, 348~349면 참조. 윤영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시라토리가 타자 없는 독백의 세계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에 비해, 식민지라는 상황은 오히려 최남선으로 하여금 독백적 민족 서사에 함몰되지 않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식민지는 민족 정체성을 내부 구성원들의 ‘신념’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제국을 향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식민지가 처한 고유한 난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식민지의 민족론이 ‘독백’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윤영실, 앞의 2018 책, 350면).

신념이나 신앙 차원의 것이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칼날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학 자체는 불편부당한데도 제국이 그것을 제 입맛에 맞게 휘두른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요컨대 그 비교언어학이라는 과학의 날카로움이 적절히 활용되기만 한다면, 「불합문화론」이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처럼 제국의 신화 역시 낱낱이 발가벗겨질 수 있었을 것인가. 혹시 애초부터 역사비교 언어학이라는 ‘과학’은 그 신화 만들기에 공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발전 과정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림의 법칙’은 바로 게르만의 순수를 찾는 낭만주의의 최전선에서 발견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³⁵⁾

IV. 고대사 기술, 혹은 신화 만들기와 언어학의 역할

실제 발화에서는 지역과 계층, 성별과 세대, 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수많은 변이를 만들어 내지만 ‘국어학’은 그러한 다양한 변이나 변종이 아니라 ‘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국어문법’과 ‘국어사전’은 이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주시경은 1905년경부터 ‘본체, 원음, 법식’이라는 개념으로 실제의 구체적 발화가 아니라 추상적인 층위에 있는 소리를 ‘국어문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의 언어’라는 가상의 실체를 가시화할 수 있었다. 단 하나의 ‘국어문법’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인 ‘국어학’을 근대 국민국가가 갖추어야 할 국가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³⁶⁾ ‘국사’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역사의 영역에서 하는 제도/

35) “프랑스의 지배하에서 게르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국가 건설사상이 유행하는 바로 그 시대에 게르만 제어의 역사적 친근관계와 그로부터 게르만 민족의 역사적 동질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의 법칙 등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 1871년 비스마르크가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게르만 민족의 최초 통일국가인 제2제국을 건설한 그 시대에 소장문법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송기중, 앞의 20004 책, 42~43면.

36) 이에 대해서는 김병문, 「국어학이라는 사상」, 『개념과소통』 19,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7 참조. 물론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문법서와 문법 이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수많은 문법서들 역시 해당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바로 그 문법을

담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게 될수록 그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크고 작은 차이들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문법’에 의해 ‘국어’가 가시화되는 시점과 민족의 기원을 찾는 고대사 연구에서 단군 신화가 중심에 서는 시점이 겹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기만 하다.

신채호와 김교헌은 최남선에 앞서 단군을 다룬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신채호가 각종의 사료를 통해 단군을 역사화하려고 했다면 대종교의 2대 교주가 되는 김교헌은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³⁷⁾ 그에 비해 신화학, 민속학을 받아들인 최남선은 단군을 통해 인종이나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대의 문화 혹은 문명의 권역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신채호나 김교헌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야심찬 기획은 현재 남아 있는 고유명사, 특히 지명의 어원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동방 문화의 연원을 비교언어학적으로 규명해보려는 최남선의 그러한 기획이 성공적이었는가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그가 「불함문화론」을 집필하던 당시 의식했던 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어휘들의 어원을 추적하여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사 서술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불함문화론」 이후에도 여러 논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신채호는 『조선상고사』(1931)에서 ‘三韓’의 ‘韓’이 바로 ‘可汗(khan)’의 ‘汗’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朱蒙’, ‘沃沮’ 등과 같은 어휘는 이들이 각각 만주어 ‘주림물[善射]’, ‘와지[森林]’ 등에 해당한다며 비교언어학적 설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는 특히 “『훈몽자회』, 『처용가』, 『훈민정음』 등에서 고어를 연구하고 삼국유사에 쓰인 향가에서 이두문의 용법을 연구하면, 역사상 허다한 발견이 있을 것”이라며 조선사를 연구하려면 고어뿐만 아니라 고대의 지명 관명의 원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³⁸⁾ 정인보 역시 『조선사연구』(1936)에서 ‘조선’, ‘옥저’,

기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37) 최남선의 고대사 연구를 평가할 때 신채호와 김교헌 등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중요하게 보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예컨대 정경숙, 「稽古箚存을 통해 본 崔南善의 古代史論」, 『규장각』 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2, 164~169면), 그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류시현, 앞의 2009 책, 130~134면 및 윤영실, 앞의 2018 책, 334면). 물론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므로 이 두 가지 평가가 대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삼한’의 ‘한’, ‘진한’, ‘낙랑’, ‘신라’, ‘아사달’, ‘암록수’ 같은 국명이나 지명은 물론이고 고대 국가의 관직명 등의 어원을 통해 고대 사회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 바 있다. 정인보와 함께 조선학 운동의 중추였던 안재홍도 『조선상고사감』(1947, 1948)에서 “조선上代史를 말함에는 지명, 국명, 관직명 또는 특수한 인명 등의 語義 해명이 매우 주요한 열쇠”³⁹⁾라고 하면서 한자어로 표기된 각종 어휘들을 ‘이두식’으로 해독하여 그 어원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상고사를 밝히려 하였다.

고대사 서술에서 어원을 활용한 예는 이른바 민족주의 사학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어서, 단군을 비롯한 당대의 고대사 기술을 비판했던 백남운은 그의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조선의 원시 씨족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각종 친족 용어의 어원을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사내’는 ‘씨내’에서, ‘계집/기집/제집/지집’은 ‘씨집’에서 온 말이고, ‘마누라’는 ‘마주 높다’라는 의미의 ‘마쵸누리’가 원형이며 ‘메누리/며느리, 누이’와 ‘同源語’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서 이 어휘들을 통해 원시 사회에서 행해졌던 群婚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식이다. 또 어머니는 ‘엄씨’, 아버지는 ‘압씨’에서, 그리고 딸은 따르다는 의미의 ‘따리’, 아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의 ‘안따리’에서 ‘轉化’한 것이며 이들은 모계 사회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⁴⁰⁾ 백남운이 친족 명칭의 어원에 주목한 것은 신채호나 최남선, 정인보 등이 국가명이나 지명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른 사회주의자 홍기문 역시 친족 명칭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물론 백남운의 접근이 사회경제사적인 입장에 선 것이었다면, 홍기문은 그보다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관점에서 친족 용어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족어나 數詞와 같은 기본 어휘들은 비교적 다른 언어로부터의 차용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한 언어의 계통을 규명하는 데 제일 먼저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1934년 조선일보 지면에 「어원고증」이라는 난을 따로 마련하여 「수사의 제형태 연구」(4.8.~4.18. 총 9회) 「친족 명칭의 연구」(5.27.~6.25. 총 13회)를 연재하는데, 여기서 그는 조선어의 수사와 친족어를 몽골어, 통구스어, 터키어, 일본어 등의 해당 어휘와 비교하고 또 『훈몽자회』나 『계림유사』와

38) 신채호, 이만열 역, 『조선상고사』(상), 형설출판사, 1983, 69면, 76면.

39) 안재홍, 『조선상고사감』(하), 민우사, 1948, 259면.

40) 백남운, 앞의 1994 책, 51~70면.

같은 옛 문헌에 나타나는 고어형을 검토하여 조선어의 계통을 규명코자 노력한다. 그리고는 우리말이 몽고어, 터키어, 통구스어 등과 설혹 동계라 하더라도 서로 분립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⁴¹⁾ 이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홍기문의 어원 연구에 대한 관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대사 기술에서 조선어의 어원을 주요한 논거로 삼는 당대의 풍토를 비평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역사와 언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1935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조선일보』에 총 9회 연재된 이 글에서 그는 우선 과거의 ‘殘物’인 언어를 역사가가 자기 학설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신채호(2월 5일자), 최남선(2월 6일자), 백남운(2월 7일 및 8일자)의 사례를 들며 어원을 활용한 이들의 고대사 기술을 실명 비판한다. 세 명 모두 그의 신랄한 지적을 피해가지는 못하는데 홍기문의 일관된 지적은 그들의 어원 고증이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점이었다. 신채호에게는 그가 어원의 과학적 고증에 좀 더 주의하였다면 역사에 대한 그의 공헌은 좀 더 거대했을 것이라는 평을 하고,⁴²⁾ 최남선에 대해서는 ‘고대의 음성 변화’를 온전히 밝히기 전에는 그가 어원 고증에 활용한 ‘법칙’들은 모두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⁴³⁾ 또 과학적 역사 연구의 제창자인 백남운이 비과학적 어원 고증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그의 친족 명칭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⁴⁴⁾

결국 홍기문은 이들 모두가 고대사 기술에 관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어원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고증이 비과학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신채호와 최남선의 연구는 “고문헌으로부터 모욕의 대문을 제거하는 동시에 모든 수단을 다하여 조상의 명예를 천명하는 일종의 전제 아래 진행”된 것이며, 백남운의 경우는 “이미 발견된 원시 세계사의 발전 계단을 무조건 조선사에 부합시키려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연재의 결론을 “하로밧비 언어과학을 세우자.” 그리하여 “과학적 어원의 고증도 행하도록 하자.”라

41) 홍기문, 「어원고증-수사의 제형태 연구」, 『조선일보』, 1934.4.18.

42) 홍기문, 「역사와 언어의 관계(4)-신단재의 어원고증을 검토함」, 『조선일보』, 1935.2.5.

43) 홍기문, 「역사와 언어의 관계(6)-최남선 씨의 어원고증을 검토함」, 『조선일보』, 1935.2.6.

44) 홍기문, 「역사와 언어의 관계(7)-백남운 씨의 어원고증을 검토함」, 『조선일보』, 1935.2.7.

고 내리고 있다.⁴⁵⁾ 즉 어원 고증이 역사가의 부업처럼 되고 있는 반면에 언어 연구자들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혼란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철자법 문제에만 매달리고 계통론과 같은 언어사의 문제에 소홀한 언어학자들에게 전적으로 있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언어과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제대로 된 언어과학’이라 함은 그가 앞서 수사나 친족명칭에 대한 연구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은 체계 잡힌 역사비교 언어학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조상의 명예를 천명’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된 고대사 기술에 언어를 끌어 들였다며 신채호와 최남선을 비판하고 과학적 언어학의 수립을 외쳤던 홍기문이지만, 그러나 과학적 언어학의 모델로 삼은 서양의 역사비교 언어학이 사실은 ‘과학’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낭만주의적 열정 속에서 자라난 것임을 그는 짐짓 외면하고 있었다. 즉 지식사회학 또는 과학사회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비교 언어학의 성립이 낭만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인데, 요컨대 인도와 접촉이 없었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독일에서 역사비교 언어학이 19세기 동안 급속히 발달한 원인이 바로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 있다는 것이다.⁴⁶⁾ 실제로 보프나 슐레겔과 같은 초기의 비교문법학자들은 언어가 하나의 유기체이며 초기의 완전하고 투명하고 감각적인 유기체에서 이성이나 정신의 작용을 받아 점차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낭만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언어에 적용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비교 언어학의 획기적인 성과 중의 하나인 ‘그림의 법칙’ 역시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13세기의 고지독일어가 현대어보다 더 고상하고 순수한 형태를 보이고 …… 5세기의 고트어는 보다 완전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1세기에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고트어보다도 훌륭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⁴⁷⁾는 그림의 언급은 독일 각지를 돌며 민담과 방언을 수집한 그의 집념이 순수하고 완전한 고대 독일어의 발견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45) 홍기문, 「역사와 언어의 관계(9)-역사 연구 방법상 그들의 착각」, 『조선일보』, 1935.2.0.

46) “19세기 초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났던 독일 낭만주의 운동과 역사언어학 발달의 관계는, 보다 광범위한 지적 추세들이 새로 생겨나는 과학적 관념 체계로 통합되는 현상의 다면적 성격을 예시해 준다.” 암스테르담스카 저, 임혜순 역, 『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 1999, 64면.

47) 야콥 그림, 『독일어 문법』, 15면(암스테르담스카 저, 임혜순 역, 앞의 1999 책, 66면에서 재인용).

그림의 법칙은 이후 제1 음운 추이와 제2 음운 추이로 구별되고, 또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 현상들을 보완하기 위해 베르너의 법칙, 그리스만의 법칙 등이 제출되는데, 음운 변화를 설명하는 각종의 규칙과 법칙들은 결국 소장문법학과의 ‘음 법칙에 예외 없음’이라는 유명한 테제로 이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구 조어를 복원하고자 하는 언어 연구의 지배적 가치는 낭만주의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생물학을 거쳐 화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자연 과학이 역사비교 언어학의 학문적 모델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이고 맹목적으로 작동하는 그 음 법칙의 발견이 바로 낭만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점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어를 기준으로 하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저 유별난 서구 중심주의이다. 한국어의 계통 연구가 1세기 이상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어를 특정 어족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어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들이 인도-유럽어족의 비교연구 과정에서 수립된 ‘어족 추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란 물론 “기초 어휘 간에 발견되는 규칙적 음운 대응”이다.⁴⁸⁾ 다시 말해 역사비교 언어학에서 특정 계통이나 어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을 대응 규칙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바로 인도 유럽어족의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물론 19세기 내내 정열적으로 진행되어 온 역사비교 언어학의 여러 성과와 그 학문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과연 인구어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음운 법칙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언어의 역사에서도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예컨대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스웨덴어 등과 같은 게르만 계통의 언어가 갈라진 시기는 약 2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언어연대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초어휘 소실률’에 따르면 어떤 공통의 언어에서 분기된 지 6000~7000년 정도가 되면 이들 사이에는 비교할 만한 공통의 기초 어휘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비교 언어학에서의 절대적 기준인 기초 어휘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음 대응은 따라서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전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⁴⁹⁾ 계통이 불분명한 것으

48) 송기중, 앞의 2004 책, 21면.

49) 전통적인 역사비교 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마쓰모토 가쓰미 저, 박종후 역, 『언어유형지리론과 환태평양 언어권』, 역락, 2014 참조. 마쓰모토는 이 책에서 流音의 유형, 형용사의 유형,

로 알려진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언어들이 인구 제어가 분기된 시점보다 훨씬 전에 어떤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면 역사비교 언어학의 방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기문은 조선학을 포함하는 동양학이 지중해로부터 시작하는 일그러진 세계사를 교정하기 위한 학문이며 그 핵심이 역사학이고 언어학이 그것을 보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분명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라토리와 최남선과 같은 이들을 통해 본 당대의 동양학과 조선학, 그리고 홍기문 자신의 언어학 관계 저술들을 통해 볼 때 역사학을 보조할 언어학이 역사비교 언어학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언어학이 서구어에서나 적용가능한 방법론으로 무장한 것이었다면, 세계사 교정이라는 동양학, 혹은 조선학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하기 난망한 그런 것이었던 것은 아닐까.

V. 결론을 대신하여-고대사라는 ‘투쟁의 장’과 언어학의 자리

앞서 이승녕이나 홍기문이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가한 신랄한 비판을 소개했거니와, 고대사 기술에 등장하는 각종 어원설에 대한 언어학계의 문제제기는 그 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예컨대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따지는 진단학회의 한 토론회에서 이승녕의 제자 이기문은 ‘檀君’을 몽고어의 ‘tengri’에 연결시키는 최남선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阿斯達’의 ‘阿斯’를 중세국어의 ‘아춤’이나 고대 일본어의 ‘asa’와 연결 짓는 이병도의 설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장난’이라며 그의 면전에서 비난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위험한 장난’을 멈추라며 역사학계의 고대사 기술을 ‘엄밀한’ 언어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준엄히 비판하고 있는 그의 한국어 계통론이 정작 가나자와 쇼자부로(1865~1938)의 『일한양국어동계론』을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의 ‘일선동조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북한 학계의 비판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명사의 수 범주와 분류 체계 등 7개의 기준으로 이른바 ‘언어유형지리론’을 펼치고 그 결과 ‘유라시아 내륙’과 ‘환태평양’이라는 언어의 분포권을 제시한다.

50) 이기문, 「언어 자료로 본 삼국사기」,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974, 211~216면.

즉, 이기문은 백제어와 신라어 같이 한반도 남부에서 통용되던 말을 韓繫 언어로, 고구려어는 부여, 옥저, 예 등에서 사용되던 말과 더불어 부여계로 구분하는데, 그 가운데 중세 및 현대 한국어의 형성에 중심이 된 것은 신라어라고 보고 사멸한 고구려어가 통구스 제어와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어 및 일본어와 알타이 제어와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것 역시 그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해 주었을 고구려어가 문헌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¹⁾ 이승녕의 제국대학 후배이자 홍기문의 김일성종합대학 동료이었던 김수경은 이러한 이기문의 설명이 바로 고구려어를 통구스 제어의 하나로 보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리고 이기문이 그러한 ‘위험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은 그의 이론이 “깨어지기 마련”인 ‘신화’, 혹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알타이어설’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²⁾

한국어 형성 과정에서 고구려어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이기문과 김수경의 논의를 여기서 검증할 의도는 없다. 다만 예컨대 광개토대왕비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고대사 자체가 근대 국민국가의 ‘욕망’이 투영되는 ‘투쟁의 장’일 수 있다면,⁵³⁾ 고대어 연구는 과연 그러한 ‘투쟁’과 전연 무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그 이론이나 연구가 발 딛고 서 있는 사회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차지하는 고구려어의 위상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이기문과 그러한 이기문의 주장을 날선 문장으로 비난하는 김수경의 모습이 남과 북이 처한 상황과 기묘하게도 연결되는 것이 우연만은

51) 부여계 제어와 한계 제어의 구분 및 이들의 위상 등에 대해서는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29~32면; 이기문, 『한국어형성성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112~113면 참조.

52)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89, 107~110면, 154면. 이기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신라어를 중심에 둔 그의 계통론이 남북 언어 통합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케 한다. “금성 즉 서라벌은 한반도의 라티움(Latium)이라고 말할 수 있음직하다. 이 지방의 언어가 드디어 한반도의 언어가 된 것이, 마치 이태리반도에 있어 라티움의 언어(라틴어)가 인근의 여러 언어들을 소멸시키고, 드디어 전반도의 언어가 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39면).

53) 광개토대왕비문에 대한 해석 논란에 대해서는 이성시, 「표상으로서의 광개토대왕비문」,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2001 참조.

아닐 것이다.⁵⁴⁾ 현재 남아 있는 동일한 언어 자료를 통해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이들의 언어학은 광개토대왕비문을 둘러싼 논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송녕이나 홍기문이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언어학이 고대사 기술에 대해 엄정한 심판자를 자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대어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자체가 일정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띠고 있음을 자각하는 편이 보다 온당한 자세인 것은 아닐까.

투고일: 2020.03.31

심사일: 2020.06.01

게재확정일: 2020.06.17

54) 언어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김수경의 관점은 민족의 형성에서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던 스탈린 이론을 대신하여 혈연과 언어의 공통성을 민족 형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60년대) 이를 토대로 조선 민족의 형성 시점을 구석기 시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북한 역사학계의 움직임(80년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수경은 조선어의 계통을 논하며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는 조선어는 바로 그때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 “어디 딴 곳의 공통어요, 조어요 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수경, 앞의 1989 책, 162면. 북한 사회의 민족 개념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참조.

참고문헌

- 최남선, 「자기망각증」, 『동아일보』, 1925.9.8.
홍기문, 「어원고증-수사의 제형태 연구」, 『조선일보』, 1934.4.8.~18.
_____, 「어원고증-친족 명칭의 연구」, 『조선일보』, 1934.5.27.~6.25.
_____, 「역사와 언어의 관계」, 『조선일보』, 1935.2.1~9.
_____, 「조선학의 본질과 현상」, 『조선일보』, 1940.8.5.
-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3
김수경,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1989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마쓰모토 가쓰미 저, 박종후 역, 『언어유형지리론과 환태평양 언어권』, 역락, 2014
백남운 저, 하일식 역, 『조선사회경제사』(백남운 전집1), 이론과 실천, 1994
송기증,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2004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신채호 저, 이만열 역, 『조선상고사』 (상), 형설출판사, 1983
안재홍, 『조선상고사감』 (하), 민우사, 1948
암스테르담스카 저, 임혜순 역, 『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 아르케, 1999
윤세복, 『譯解綜經四部合編全』, 대중교충본사, 1968
윤영실, 『육당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부, 2018
이경철,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 연구』, 보고사, 2003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탐출판사, 1972
_____, 『한국어형성성사』,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이성시 저, 박경희 역,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2019
이성시,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2001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현암사, 1973
최남선 저, 정재승·이주현 역,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_____, 전성곤 역, 『불함문화론, 살만교차기』, 경인문화사, 2013
風間喜代三 저, 김지환 역, 『19세기 언어학사』, 박이정, 2000
황호덕,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 김병문,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난점-홍기문의 1930년대 언어 연구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 _____, 「국어학이라는 사상」, 『개념과소통』 19,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7
- 김현주, 「문화, 문화과학,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최남선의 ‘檀君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 송기중, 「알타이어족의 비교언어학」, 임용기 · 홍윤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 송호정,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 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대사논총』 1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2000
- 시라토리 구라키치 저, 조정철 역, 「단군고」, 신종원,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 오문석, 「민족문화와 친일문학 사이의 내재적 연속성 문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오영섭, 「조선광문화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한국사학사학회, 2001
- 이기문, 「언어 자료로 본 삼국사기」,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974
- 정경숙, 「稽古筭存을 통해 본 崔南善의 古代史論」, 『규장각』 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2
- 최병현,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고려시대 단군 신화 전승 문헌의 검토」, 윤이흠 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증보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白鳥庫吉, 「朝鮮語とUral-Altai語の比較研究」, 『白鳥庫吉全集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The Relationships of Making Ancient History and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with a view through Choi Nam-Seon's *Bul-ham Culture*

Kim, Byung-moon

Choi Nam-Seon is writing in *Bul-ham Culture* that Dangun, legendary founding father of Gojoseon is the only key to the riddles of Chōson Ancient History and Dangun is very important cornerstone of Asian Studies who can look at what the Far East Culture was. However, the only key to the riddles of the Ancient History was narrowly possible through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 methodology beginning from '白=백'('pärk'). If so, the key of describing the Ancient History is depending on the workability of the comparative linguistic methodology. The search for the vestiges of the Ancient History that remains in the language seemed to be regarded as a mandatory work not only for Choi Nam-Seon but also for those who wanted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nation. However, the linguistics always glanced suspiciously at such an attempt by the historical studies and always begrudged. the main reason is that it is an insufficient analysis jumping to conclusions without knowing the 'scientific' methodology of linguistics. But in 'the place of struggle' named the ancient history discovered by Modern Historical Studies, could the linguistics really take over the role of a strict judge?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rough a view of Choi Nam-Seon's *Bul-ham Culture* we will examine what methodological basis the ancient history descriptions in those days stands on specially focused on comparative linguistics methodologies. Furthermore, firstly we will confirm that Choi Nam-Seon's methods or position are by no means only for his own concerns, but for the

concerns shared by those who he tried to compete and raised questions for him. Secondly we will examine whether or not such attempts by them are appropriate and by some possibility, there are some problems existing inside such a planning itself.

Key Words : Choi Nam-Seon, *Bul-ham Culture*, Dangun, Ancient History, 'pärk',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